## 中國 延邊地域語의 움라우트現象

蔡 玉 子

1.

움라우트 현상은 李崇寧(1954) 이래, 그것이 국어모음체계의 변화에 대하여가지는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국어 審韻史上 줄곧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이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바, 李崇寧(1935), 정인승(1937)에서는 이 음운현상의 음운론적인 기제를 밝히고 체계화하고 있으며 李崇寧(1954)에서는 이 음운현상이 음운사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며 김완진(1963/1971), 이병근(1970)에 이르러서는 이 음운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구체적으로 밝혀짐과 동시에 그것의 모음체계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해석되고 있다. 그 밖에 최전승(1986)은 이 음운현상의본질과 통시적 전개과정을 정밀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최명옥(1988.1989)는 움라우트 현상이 통시적인 현상이라는 것과 개재자음의 제약조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기술하였다(곽충구1994).

이와 같이 움라우트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이미 이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동화주와 피동화음 및 개재자음의 제약 등과 같은 음운론적인 조건은 물론 형태론적, 통사론적인 제약까지도 釋明하게 밝혀지게 되었으며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가 병행되었는가 하면 그 연구범위 또한 중앙어에서 방언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방언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아직 제한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특히 동북, 서북 방언에 있어서의 움라우

트 현상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줄로 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동북방언의 모습을 다분히 보여 주는 중국 연변지역어<sup>(1)</sup>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제공의 차원에서나마 이 음운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방언연구에 기여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며 동시에 움라우트 현상의 기원에 관한 문제 즉 과연 南濃北稀인가 하는 문제에도 어느 정도 해답을 줄 것으로 믿는다.

움라우트는 피동화음과 동화주 사이에 일정한 개재자음이 놓일 경우 피동화음인 후설 계열의 모음들이 흔히 국어의 동화주 /i y/에 의하여 전설 계열의 모음으로 변화하는 음운현상이다. 그리하여 움라우트는 일명 i모음역행동화라고도 불린다. 이 음운현상은 범언어적인 현상으로서 영어나 독일어 등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의적인 것으로 같은 조건에서 보편적으로 꼭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움라우트의 실현 예들도 이 지역어에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 즉 움라우트현상을 가능의 법칙으로 채택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국어 움라우트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면 주로 첫째, 동화주와 피동화음 및 개재자음의 음운론적 성격이며 둘째, 움라우트와 운소와의 관계 즉 운소가 움라우트에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셋째, 움라우트와 모음체계와의관계이며 넷째, 움라우트 현상의 통시성과 공시성에 관한 문제이며 다섯째, 움라우트 규칙이 갖는 음운론적 제약 이외의 형태론적 및 통사론적 제약에 관한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이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유의하면서 이 지역어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동화주가 /i y/에만 국한되는 i움라우트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전설모음 /e ɛ/에 의한 움라우트로 확대되는가 하는 문제도 방언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sup>(1)</sup> 필자의 고향인 도문(圖們)을 중심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쓰이는 지역방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곳에서는 주로 함경도에서 이주해 온 조선족들과 그 후세들 이 많이 살고 있다. 본고에서 분석 기술되는 자료는 주로 필자가 이 지역어의 보유자로서 평소에 들은 자연발화에서 수집해 놓은 것임을 밝혀 둔다.

2.

움라우트 규칙의 제약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형태론적 제약 규정은 음운론적 제약 규정보다 앞서 적용되고 음운론적 제약은 문법적 제약의 가능한 실현 범위내에서도 항상 작용하고 있다. 단, 음운론적 층위 이외의 층위로부터의 제약은 그 실현범위에 대한 규제를 뜻할 뿐이다(이병근 1971 참고). 따라서본고에서는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 및 음운론적 층위에서의 제약을 고려하여 우선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으로 나누고 다시 피동화음 및 개재자음별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 1) 형태소 내부에서의 움라우트

움라우트가 형태소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실현된다는 것은 이전 연구에서 오래전에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 지역어에서의 움라우트 현상도 중앙어나 기타 방언과 마찬가지로 명사나 동사의 형태소 내부와 일부 파생어에서 실현 되고 있다. 파생어의 분석가능성은 문제가 되겠으나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하 지 않고 함께 다룬다.

(1) a.		
애기(아기)	소내기(소나기)	갑째기(갑자기)
매키다(막히다)	배키다(박히다)	
애끼다(아끼다)	깨끼다(깎이다)	
앵기다(안기다)	냉기다(남기다)	쟁기다(장기다)
맺기다(닷기다)		

생기다(당기다) 매끼다(맡기다)

/1) a

챗기름(참기름)

b. 애비(아비) 채비(차례) 마구재비(마구잡이)

엔손재비(왼손잡이) 가채비(가까이) 재피다(잡히다) 어채피(어차피) 챔빗(참빗)

c.

대리미(다리미)

채리다(차리다)

애리다(아리다)

대리다(다리다)

개리다(가리다)

개렵다(가렵다)

매렵다(마련다)

d.

챈채이(찬찬이)

댄대이(단단이)

쌔이다(쌓이다)

째이다(짷이다)

f.

매이다(마시다)

g.

바람재: (바람장이) 깎재(깍장이)

거짓말재: (거짓말장이)

기재: (기장이, 長)

고래:(고랑이)

(2) a.

구데기(구더기)

젖메기(젖먹이)

섹켄(석현, 지명)

예기다(여기다)

셍기다(섬기다)

넹기다(넘기다)

뻿끼다(벗기다) 메기다(먹이다)

셀기떡(설기)

b.

체네(처녀)

에미(어미)

네비(너비)

구데: (구덩이) 구레: (구렁이)

(3)

세: 게(소경)

똑떼기, 떽떼기(똑똑이)

엥기다(옮기다)

베기싫다(보기싫다)

(4)

쥐기다(죽이다)

쉬기다(숙이다)

기경(구경)

(5)

디리다(드리다) 건디리다(건드리다) 기리다(그리다) 딛기실타(듣기싫다)

(1)~(5)는 명사나 동사 및 부사의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는 움라우트를, 우선 이 지역어의 모음체계와 움라우트 규칙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피기 위하 여 / a, ə, o, u, i /의 피동화음별로 나누고 다음 이 음운규칙의 제약조건을 살피기 위하여 개재자음별로 나누어 제시해 놓은 예들이다.

이 예들에서 (1)(2)는 움라우트가 가장 활발하게 실현되는 a→ɛ, a→e 예들이고 (3)(4)(5)는 o→ö, u→ü, i→i 순으로 움라우트의 실현정도를 보인다. 이는 이 지역어의 모음체계와 관련되는데 이 지역어의 단모음체계는 9모음체계로 볼 수 있다. 이 체계는 전설모음으로 / i(ü), e, ɛ /와 후설모음으로 / i, u, a, o, a /로 이루어져 있는바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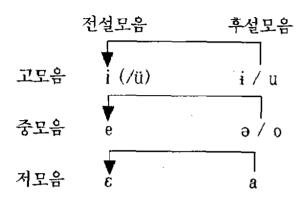
	전설모음	후설모음
고모음	i (/ü)	i/u
중모음	e	ə / o
저모음	ε	a

班 1

단, 여기에서 단모음 /ü/는 음운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i/ 또는 이중모음 /wi/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동요로 말미암아 동화주 'u'에 의한 움라우트의 실현도 '쥐기다'와 '기경'에서와 같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쥐,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쥐기다, 쉬기다' 등 [+coronal]의 자음 다음에서 움라우트된 / ü/를 경험함은 흥미롭다 하겠다.

단모음 /ö/는 흔히 /e/거나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화주 'o'에 의한 역행동화는 /e/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움라우트 현상을 모음체계와 관련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5)의 예들에서 보다싶이 동화주는 /i y/인데 /y/에 의한 움라우트 형으로는 '섹혠, 체네, 기경' 등과 같이 한자어들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개재하는 자음들을 보면 대부분 /m p k k' ŋ/과 같은 순자음이나 연구개자음 즉 변자음의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여기에서 (1) c(다리미 →대리미 등)는 유음 /r/이 개재자음으로 되는 경우인데 반면에 다음의 예들에서는 중앙어나 기타 방언과 마찬가지로 움라우트의 실현이 어려움을 보인다.

다리(다리)	파리(파리)	자리(자리)
머리(머리)	버버리(벙어리)	서리(서리)
오리(오리)	눈초리(눈초리)	
구리(구리)		

따라서 개재자음이 /r/인 경우에는 단어 또는 형태소에 따라 그것도 수의 적으로 움라우트가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d(찬찬이→챈채이 등)는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의 개재자음이 /n/으로 보이지만 실은 '찬찬이-찬차이-찬채이-챈채이', '단단이-단다이-단대이-낸대이' 의 음운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지역어에서 화자에 따라 '찬차이, 찬채이, 챈채이', '단다이, 단대이, 댄대이' 등 방언형으로 실현되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즉 '찬찬이 →찬차이', '단단이→단다이'로 되는 과정에 /n/자음 탈락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음운현상으로 일부 방언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언에서와는 다른 특이한 음운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음운현상에서 특이한 점은 선행자음이 'ㄷ, ㅊ' 등 [+coronal] 또는 [-grave]인 것이다. 즉 전설모음과 관련되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예들은 /n/탈락만을 경험하고 움라우트는 실현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앞의 (1)d(찬찬이→챈채이 등)에서 보인 움라우트는 이 지역어의 /n/자음탈락이 적용되기 이전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움라우트의 적용순서에서 보면 움라우트는 자음탈락에 앞서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d(찬찬이→챈채이 등)의 움라우트 예들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준다.

즉,

A. ① a 
$$\rangle \epsilon / x$$
—(x) i  
② a  $\rangle \epsilon / x$ —(x)  $\epsilon$ 

B. ① a  $\rangle \epsilon / x$ —(x) i  
② a  $\rangle \epsilon / x$ —(x)  $\epsilon$ 

C. ① o  $\rangle \ddot{o} / x$ —(x) i  
② o  $\rangle \ddot{o} / x$ —(x)  $\ddot{o}$ 

D. ① u  $\rangle \ddot{u} / x$ —(x)  $\ddot{u}$ 
② u  $\rangle \ddot{u} / x$ —(x)  $\ddot{u}$ 

와 같이 i-움라우트가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이에 의해 생성된 전설모음인 피동화음이 다시 동화주가 되어 이차적으로 각각 -ε-움라우트, -e움라우트, -ö(〉e)-움라우트 및 -ü-움라우트가 적용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차적인 움라우트를 보인 예들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닌바, 이러한 예들이 딴 방언들에서도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충남방언을 다룬 도수희(1981)에서도 짝짝이→짹짹이, 넉넉히→넥네기, 똑똑히→뙥뙤기 등 예들을 보이고 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똑똑이 〉 떽떼기' 등은 동남방언 등에서도 있다고 한다.

- (1)e(쌓이다→쌔이다 등)의 예에서는 움라우트가 적용된 다음에 'ㅎ탈락'이 적용된 것이고 (1)g( 기장이, 長 → 기재: 등)의 예에서도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고나서 'ㅇ탈락'이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1)f의 '마시다→메이다'는 일단 '마시다→마이다'로 치음 /人/이 탈락된 다음 움라우트 현상이 일어나 '마이다→메이다'로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인지 알수 없으나 이 지역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예가 아닌가 싶다. /人/의탈락은 △〉ø/v-v에 유추된 것인지는 모르나, 이 방언은 흔히 △과 ㅅ의 합류방언이기 때문에 역시 개별적인 특유어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또 이 지역어에서는 '던지다→덴지다, 데지다(投)', '송아지→쇄:지', '더디다 →데디다(버리다)'의 예가 나타나는데 같은 환경에서 이 같은 치음이나 경구개음이 개재자음으로 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는 어디까지나 이례적인 것이라 하겠다. 특이한 것은 이런 예들의 환경을 보면 대부분 그 형태소 내부에 하나의 치음이나 경구개음이 앞이나 뒤에 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될 수 있는지는 충분한 자료의 검토와 함께 그 것의 음운론적인 기제가 밝혀져야만 알 수 있을 것 같다.
- (3)(옮기다 --엥기다 등)은 /o/가 /i y/에 의하여 /ö/로 변화하여 음라우트를 경험하였으나 이 지역어의 모음체계에서 ö가 현대방언에서는 존재하지 않(중앙어의 ö는 이 지역어에서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으므로 다시 ö〉/we/의 변화를 거쳐 실현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똑똑이〉떽떽이'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o〉ö/x—(x) i 와 ① o〉ö/x—(x) i 와 ① o〉ö/x—(x) ö에 의한 움라우트가 계기적으로 실현되고 이렇게 형성된 ö가 /e/로 변화하였다고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역행동화가 순차적으로 적용되고서 전설모음이 그에 짝이 되는 비원순모음으로 바뀐 점이 이 지역어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3)의 '보기싫다→베기싫다'는 (5)의 '듣기싫다→딛기싫다'와 마찬가지로 통 사론적 구성이기는 하나 이미 형태론적 구성으로 化石化함으로써 한 단어로 기능하여 움라우트가 가능하여진 예이다.

마찬가지로 한자어에 있어서도 움라우트 현상은 순수한 한국어의 경우와 평행되는 것으로 단일 형태소처럼 인식될 정도로 화석화되었을 경우 움라우 트가 실현된다.(2)

다음 예들은 외견상 움라우트형을 직접 보여 주지는 않으나 분명히 움라우 트 현상을 겪은 것들이다.

(7) 쌍뒤,쌍디(쌍둥이)포재뒤, 포재디화작뒤, 화작디재간뒤(재단둥이)주디(주둥이)궁디(궁둥이)

이상 형태소 내부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이 지역어의 움라우트 역시 중앙어나 기타 방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바 피동화음이후설 계열의 비원순모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재자음도 거의 [-coronal]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개재자음이 중자음일 경우, [+coronal]자음을 포함하고 다른 한 자음은 비음일 때 개재자음에 대한 제약이 약해져 움라우트가실현되는 예가 가끔 나타난다. 그리고 유음 /r/이 개재하여도 움라우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밖에 전설모음 /e ɛ/에 의한 움라우트로 확대되는 예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한가지 지적할 문제가 있다. 최전승(1978), 한영균(1980) 등에서는 1차적으로 -ay-와 같은 움라우트를 겪은 후 2차적으로 -ɛ-와 같은 움라우트가형성된다고 하였으나 이 지역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들 논문의 대상이 된 방언은 아직도 하향이중모음의 실현이 가능한 방언들인데 전라도 방언 아니면 이와 여러 공통점을 지닌 충청남도 방언이었다. '가면'을 'kaymən'처럼 실현시킨다면 그것은 일단 '-y-'삽입현상이라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역사가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사실인지도 모르겠다.

(2)	(6)	a			
		1.	새기꾼(사기꾼) 재격(자격) 갱변(강변)	앰기(암기) 핵꾜(학교) 새치꾼(사치꾼)	앵경(안경) 채비(차비) 내맹(남양)
		b.	섹껭 (석경)	옌길(연길)	센녜(선녀)

이처럼 (6)에서는 오히려 순수 한국어보다 개재자음에 대한 제약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치음이나 경구개음도 개재자음으로 되는 예들이 보인다.

#### 2)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

형태소 경계에서 움라우트가 가능한 음운론적 환경을 보면, 명사가 주격 '-이-'나 계사'-이'와 통합될 경우와 용언에 명사화소 '-기'가 연결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 지역어에서는 중앙어나 기타 방언과 마찬가지로 전자의 경우에만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움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 통사론적 제약을 보이고 있다(이병근 1971).

다음은 이 지역어에서 형태소 경계에서 즉 명사에 주격 '-이'나 계사'-이-'가 통합되어 실현되는 움라우트의 예들을 피동화음과 개재자음별로 구분하여 제시해 놓은 것이다.

```
(8) a_1
   쌔기(싹+이)
                 집재기(짐작+이) 총개기(총각+이)
  무람배기(물함박+이) 손꼬래기(손가락+이)
   간재:(간장+이)
 b.
   때미(땀+이)
                 내미(남+이) 매미(맘+이)
   쌔미(쌈+이)
                 말배:(말밤+이.마름) 재미(잠+이.기미)
 c.
   내비(납+이)
                 대대비(대답+이)
(9) a.
   찰떼기(찰떡+이)
 b.
   게비(겁+이)
                 베비(법+이)
                           눈쎄비(눈섭+이)
   베미(범+이)
                세미(섬+이, 철)
(10)
```

기리미(기름+이) 시리미(시름+이)

이리미(이름+이)

고리미(고름+이) 거리미(걸음+이) 어리미(얼음+이) 주리미(주름+이) 찌미(쯤+이, 틈)

- (11) 쉐기 (속+이)
- (12) 베리기(벼룩+이) 뉘기, 니기(누구+이)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 현상도 형태소 내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지역어의 모음체계와 관련되는데 이 지역어의 단모음체계는 [표1]에서와 같이 9모음체계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단모음 /ü/는 음운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i/ 또는 이중모음 /wi/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동화주 'u'에 의한 움라우트의 실현도 불안정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단모음 /ö/도 흔히 /e/거나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화주 'o'에 의한 역행동화는 /e/ 또는 /we/로 실현되게 된다.

이러한 움라우트 현상은 모음체계와 관련시켜 보면 형태소 내부에서의 그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 (8){집재기(집작+이), 쌔미(쌈+이), 대대비(대답+이) 등}과 (9){찰떼기(찰 떡+이), 게비(겁+이), 베미(범+이) 등}는 피동화음이 /a, ə/일 경우에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예들로서 동화주 /i/앞에는 /k, m, p, ŋ/과 같은 순자음이나연구개 자음 즉 변자음의 부류에 속하는 개재자음이 놓여야 가능하다는 것을알 수 있다. 이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10){이리미(이름+이), 기리미(기름+이), 시리미(시름+이) 등}은 피동화음 /i/가 동화주 /i/에 의하여 /i/로 동화되는 움라우트 현상이다. 여기에서 개재 자음은 모두 /m/이고 피동화음의 선행자음은 /r/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그것이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추가될 수 있을 듯싶은데 단언하기는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다.
- (11)의 '속이 타다 → 쇠기 타다 → 쉐기 타다'는 움라우트가 실현된 다음 다시 /ö/〉/we/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어의 현대방 언에서의 모음체계에 /ö/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

이 '배추속이→배채소기', '무우속이→무끼소기', '속이 베다→소기 베다'와 같은 경우는 움라우트 실현이 불가능함을 보인다. 이는 전자에서 제1음절에 악센트가 오는 것과 관계되지 않는가 싶다.

(12)의 '누구+이→니기'는 일단 '누구+이'가 활음화되어 '누귀'로 변화되고 '누귀'는 이 지역어의 음운변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ü/〉/i/의 변화를 거쳐 '누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다시 피동화음 /u/가 동화주 /i/에 의하여 /ü/로 되어 결과적으로 '뉘기'로 움라우트 실현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니기'는 '뉘기'가 또 다시 /ü/〉/i/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형태소 내부에서는 (7)의 '쌍뒤,쌍디(쌍둥이), 주디(주둥이)' 등과 같이 파생접미사 '둥이'에 의하여 형성된 명사의 형태소내부에서 움라우트가 가능하지만 형태소 경계에서는 '기둥+이→기두이'. '지붕+이→지부이', '영웅+이→여우이' 등에서처럼 ㅇ탈락규칙은 적용되지만 움라우트 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움라우트가 1차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이것이 점차 형태소 경계로 확대되었으며 이 음운현상은 또한 밀접히 연결된 統合的 現象으로 休止가 개입되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며 형태소 내부에서 그것의 실현이 가장 강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 준다.(3)

<sup>(3)</sup> 움라우트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전설모음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일정한 동화주 없이 피동화음 /a/가 /ε/로 전설모음화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13)	모재(모자)	손재(손자)	부재(부자)
	임재(임자)	그림재(그림자)	가재(과자)
	감재(감자)	팔재(팔자)	오미재(오미자)
	가매(가마)	도매(도마)	조캐(조카)

이들은 국어의 방언에서 해안에 위치한 방언에서 흔히 나타나는. 명사 어근에 '-이'가 덧붙는 현상 즉 [N+이[suf]]N의 구성에 이어 모음축약이 실현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또 '댐배(담배), 재정고(자전거), 때지-(따지-), 맨들-(만들-)'들도 움라우트라형이라 볼 수 없는데. 흥미로운 점은 인접자음으로 〔+coronal〕이 있는 사실이다. '맨지-(만지-)'도 환경은 유사하나 이는 음성상징에 의한 미세한 의미차가 있는 듯하다.

3.

지금까지 필자는 도문(圖們)을 중심으로 한 중국 연변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하여 공시적으로 살펴 보았다.

끝으로 본고에서 논의된 것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려고 한다.

우선 이 지역어에서는 동화주가 /i y/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i움라우트를 겪은 다른 전설모음 /e ε/도 동화주로 되는 예(1d의 챈채이←찬찬이 등)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의 개재자음의 음운론적 성격은 중앙어나 기타 방언과 비슷하여 [-coronal]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이 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도 이 지역어의 현대 방언의 모음체계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이 지역어에서 단모음 / ö /는 흔히 /e/거나 /we/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화주 'o'에 의한 역행동화도 /e/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3)의 엥기다는옮기다등

그렇다면 이 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은 음장이나 성조와 같은 운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자료의 부족으로 밝히지 못했는 데 앞으로 충분한 자료의 검토와 함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 : 요녕대학 한국학과 교수)

### 〈참 고 문 헌〉

곽충구(1991), 咸北 六鎮方言의 音韻論(國語學叢書20), 太學社.

\_\_\_\_(1997), 연변 지역의 함북 길주·명천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 -어 위·문법·음운·성조 조사 자료-, 애산학보 20, 179-274.

김영배(1985), i모음역행동화와 그 개재자음, 한국문화연구 2, 101-116. 김완진(1963/1971), 국어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도수희(1981), 충남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방언 5, 1-20

- 이병근(1970),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논문집 9, 375-389.
- \_\_\_\_(1971), 운봉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김형규박사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 李崇寧(1954), 國語音韻論研究 第一輯'·'音攷、乙酉文化社
- 정인승(1937), 'i'의 역행동화 문제, 한글 5권 1호, 1-7.
- 최명옥(1988), 국어 Umlaut의 연구사적 검토, 진단학보 65, 63-80.
- \_\_\_\_(1989), 국어 움라우트의 연구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3.
- 최전승(1978), 국어의 i-Umlaut 현상의 통시적 고찰, 국어문학(전북대)19, 173-212.
- \_\_\_\_(1990), 움라우트,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研 究會 編.

#### 국문초록

## 中國 延邊地域語의 움라우트現象

蔡 玉 子

본고에서는 도문(圖們)을 중심으로 한 중국 연변지역어를 대상으로 이 지역어의 움라우트현상을 공시적으로 살펴 보았다.

우선 움라우트현상을 형태소내부에서의 움라우트와 형태소경계에서의 움라 우트로 나누고 다시 피동화음 및 개재자음별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지역어의 움라우트현상도 이 지역어의 현대방언의 모음체계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예컨대 이 지역어에서 단모음 /ö/는 흔히 /e/거나 /we/로 실 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화주 'o'에 의한 역행동화도 /e/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동화주와 피동화음사이의 개재자음의 음운론적 성격도 [-coronal]이다. 이런 점에서는 중앙어와 기타 방언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역어에서는 동화주가 /i y/에 국한되지 않고 i움라우트를 겪은 다른 전설모음 /e ε/도 동화주로 되는 예가 있는 것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 (Abstract)

# Umlaut in the Regional Dialect of Yanbian in China

Cai, Yu-zi

In the present study, umlaut in the regional dialect of Yeonbeon in China, centering Domun area, is examined from a synchronic perspective.

Umlaut is described, divided into intramorphemic umlaut and intermorphemic umlaut. They are again divided by the targeted vowel and the intervening consonant, respectively.

Umlaut in this dialect is closely related to vowel system, as generally expected. For instance, since the monophthong /ö/ in this dialect is usually realized as either /e/ or /we/, the regressive assimilation by /o/ results in /e/ in most cases. The crucial phonological property of the intervening consonant between the trigger and the target of umlaut is [-coronal]. In this respect, this dialect is similar to Seoul Korean and other dialects.

This dialect, however, displays a unique characteristic in the sense that the trigger of umlaut is not confined to /i, y/. Other vowels like /e,  $\varepsilon$ / that already experienced umlaut also participates in umlaut as active umlaut-triggering vowels.